

# ‘통합관광정보 앱’ 고도화... 관광 활성화 시동

## 민간 플랫폼 연계 예약·결제 스마트 관광해설사 대상 확대

목포시가 4월부터 기존 스마트 관광안내 앱의 콘텐츠를 확대하고 기능을 한층 향상시킨 스마트 관광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서남권 9개 시·군 콘텐츠 확대로 목포의 모든 관광정보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비짓목포’ 앱(App)과 주요 관광지를 다국어(한·영·일·중)로 해설하는 ‘스마트관광해설사’ 앱(App)을 지난 2021년 구축해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제공된 서비스는 관광 정보제공 기능이 국한되어 있고, 콘텐츠가 목포시에 한정되어 있어 서남권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사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시는 기존 앱을 대폭 업그레이드

해 관광객들이 한층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 비짓목포(Visit Mokpo) 앱은 네이버 플레이스, 야놀자, 여기어때 등의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숙박·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 예약·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한층 간편한 방법으로 목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관광해설사 앱은 서남권 9개 시

·군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 서남권 주요 관광지의 해설을 앱 하나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고, 스토리텔링 형식의 오디오 콘텐츠로 전달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광 앱 최초로 도입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목포 관광에 관한 주제에 한해 관광객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대화로 제공하게 된다.

시는 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객들이 더욱 재미있게 목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6월 목포 스마트 관광해설사 앱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앱 고도화를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성 증진과 더불어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 돌파’ 기념 이벤트

### 10만원 이상 기부시 자동 응모

목포시가 올해 81일만에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 돌파를 기념하며 참여 이벤트를 추진한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되는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비기부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기부 참여의 보람과 추가 경품 획득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참여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목포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이벤트 진행 시점부터 기부 순번이 100번째가 될 때마다 개별 통지한

다. 이벤트는 목포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2억원 달성까지 진행되며 당첨자가 본인 SNS에 기부 인증시 3만원 상당의 경품이 지급된다. 기부자가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하고 이벤트에 당첨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은 물론 추가 경품을 지급받아 총 1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

목포시 관계자는 “더욱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의 혜택과 가치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목포 고향사랑기부금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시립무용단, 유명 전통무용가 초청 기획공연

목포시립무용단(상임안무자 배강원)이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목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名舞(명무)초청 기획공연 ‘心舞(심무)-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를 개최한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춤에 대한 기예가 뛰어난 유명한 전통무용가 5인을 초청해 근대시대 어려웠던 우리의 고단한 삶을 노래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몸짓이 아니라 마음이 몸에서 우러나는 춤 ‘심무’를 주제로, 흥이 나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다보니 흥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춤에는 희노애락이 담겨있으며, 춤으로써 마음에 간직한 희망을 담고 있다.

여는 춤, 잇는 춤, 우리의 춤으로 구성된 무대는 시립무용단의 태평성대를 시작으로 산조춤 ‘그 너머의 봄’ (유정숙 전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김진걸 산조춤보존회 회장), 세가지 전통리듬(안병주 경희대 무용학과 교수,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부

채춤 보유자)을 한국적 춤사위로 선보인다.

이어 잇는 춤으로 시립무용단의 규장농월, 락무(남수정 용인대 무용과 교수, 2023 대한무용협회 무용대상), 여울(전순희 서경대 무용예술학부 교수, 대한무용협회 부이사장), 진도복춤(김선정 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2023 대한민국 무용대상 대통령상 수상)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마무리 공연은 목포시립무용단이 전통기반 창작춤 삼학학춤(배강원 예술감독 안무)으로 준비된다.

대미를 장식하는 삼학학춤은 삼학도의 전설을 기반으로 수천년의 긴 시간동안 길을 잃고 헤매지만 멈추지 않고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 표현되며, 저마다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희망과 목표의 힘찬 비상을 기원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2일부터 온라인 티켓링크(예매수수료 별도)에서 예매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경찰 하당지구대, 어르신 대상 범죄예방 교육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경정 홍영상)는 지난달 29일 신종범죄로부터 취약한 노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내 하당현대아파트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범죄예방교육은 하당지구대에서 자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계획 일환으로 치안서비스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1:1 상담 및 치안시책을 홍보함으로써 시민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해 실시했다.

하당지구대는 지난달 21일 초원1차아파트 경로당을 시작으로 상담소를 운영했으며 주1회 관내 경로당 22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범죄예방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영상 하당지구대장은 “관내 경로당과 주기적으로 협조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는 최근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을 주제로 2024 유달산 봄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목포시 제공

##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 유달산 봄 축제 성료

### 만호수군 출정 퍼레이드 ‘봄, 수군문화’ 주제 눈길

목포 유달산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 ‘2024 유달산 봄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축제의 핵심콘텐츠로 ‘봄, 수군문화’를 선보이며 산중객들에게 목포의 수군문화를 널리 알렸다.

이번 유달산 봄축제의 주제는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으로, 주제에 걸맞은 만호수군 출정퍼레이드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

판옥선 차량을 제작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 이번 퍼레이드에는 22개 동 주민참여단, 어린이집, 해군 3함대, 목포해양대와 시민 및 관광객 참여단, 체전 홍보단 등으로 구성됐다.

축제 퍼레이드는 조선수군과 현대수군, 목포시민이 함께 모여 수군역사의 본거지인 목포를 담아내고, 시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함께 참여한 시 체육회 등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의미를 더했다.

시는 수군의 문화와 역사를 홍보하고자 올해 수군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화

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만호수군 출정 퍼레이드와 수군무예공연, 수군 병역체험관, 만호 이순신 역사홍보관, 이순신 유적지 순례단, 사랑의 노적 쌓기 등을 선보였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유달산 봄축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면 그 이상 바랄게 없다”며 “축제는 목포시민 모두가 합심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축제 성공을 위해 한 뜻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최종 선정

### 지방재정 확충 주력

목포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목포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목포시는 실태조사 추진 계획 및 자체 예산확보, 공제사업 참여도 등에 따른 선정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

았다.

시는 전국 24개 자치단체에게 지원되는 사업비 24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공유재산 대상 정비와 현장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무단점유 공유재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확충에 힘써왔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을 받게 된 만큼 시 공유재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하는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해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보전 부적합 재산 처분, 신규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징수로 장기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세밀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도록 지적공부와 재산관리대장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 재산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